

## 데이터 없는 감(感)에서, 근거 있는 결정으로.

## 성과 없는 비용이 보이기 시작하면, 개선이 시작됩니다



| ALM 기반, 요구사항 중심의 진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

### Time 분석

- 제품(서비스)는 계획된 시간 안에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 될 수 있는가?
- 시험 제품(서비스)는 언제?
- 제품(서비스)은 계획된 시간에 시장에 출시가 가능한가?

### Scope 분석

- 제품(서비스)가 기획에 맞게 출시되었나?
- 제품(서비스) 요구사항은 기획의도에 맞게 구성되었는가?
-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작업자에게 전달 및 관리 되었는가?

### Cost 분석

- 제품(서비스)의 요구사항 단위마다 얼마만큼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였는가?
- 버전의 요구사항 총 비용은 얼마인가?
- 전체 개발 및 운용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?
- 개별 연봉 대비 성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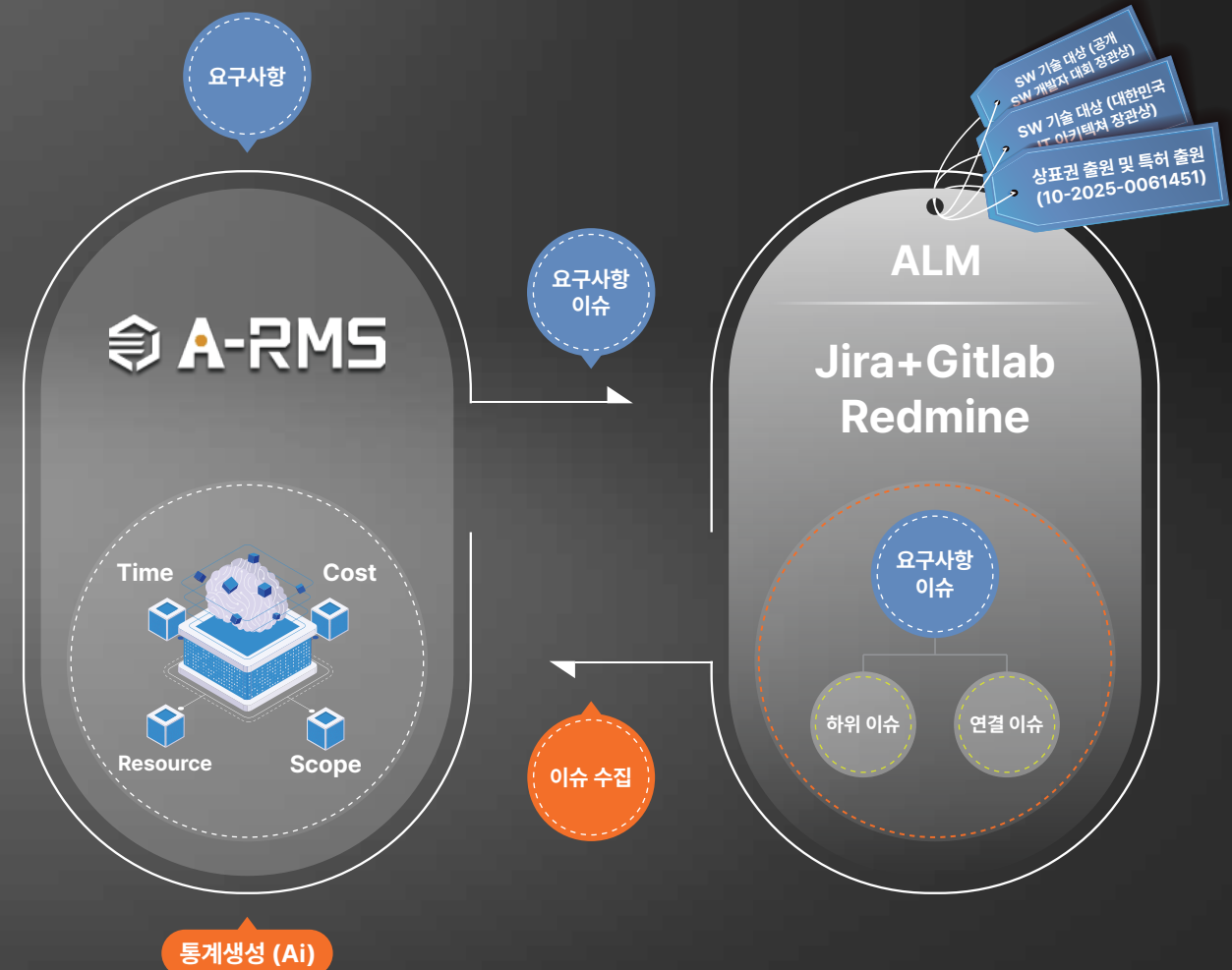
### Resource 분석

- 제품(서비스)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?
- 투입된 인력의 퍼포먼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?
- 투입된 팀의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인가?

A-RMS



요구사항 단위로 비용을 역산해,  
프로젝트의 진짜 원가를 보여줍니다



|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,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는 방법

E-mail. admin@313.co.kr

Tel. 010 - 5093 - 7313

✓ Ai + ALM(Jira, Redmine, Gitlab...) + RMS + PMS = **A-RMS**

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고  
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

## A-RMS는 제품(서비스) - 프로젝트를 보이게 만듭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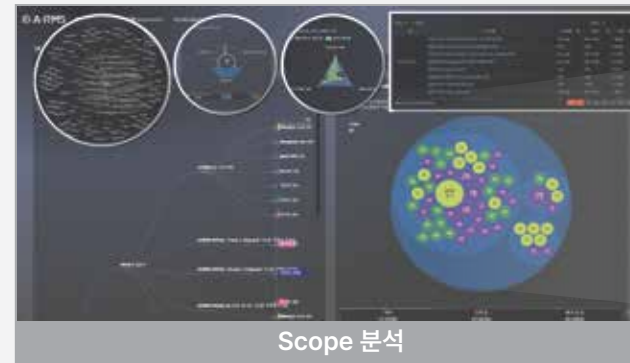
지금 어떤 일을 누가 얼마큼. 언제 끝날지 관리자는 알고 보고하는건가?

책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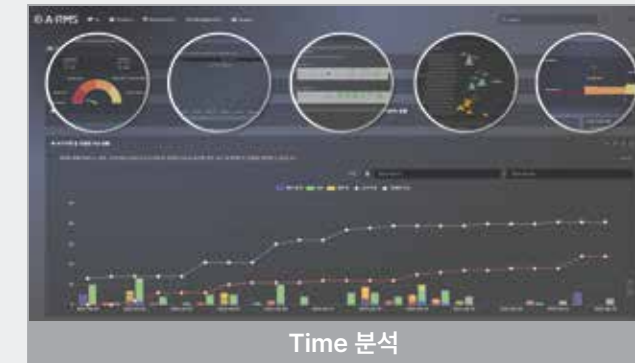
"이 정도 진행했으면 뭔가 나와야 하는데... 왜 체감 성과가 없지?"

책임자

제품(서비스)의 범위 확인 및 성과 논의



제품(서비스)의 일정 확인 및 인력 논의



그냥 "시킨 거만 함" → 자율성↓ 이해도↓ 퀄리티↓

관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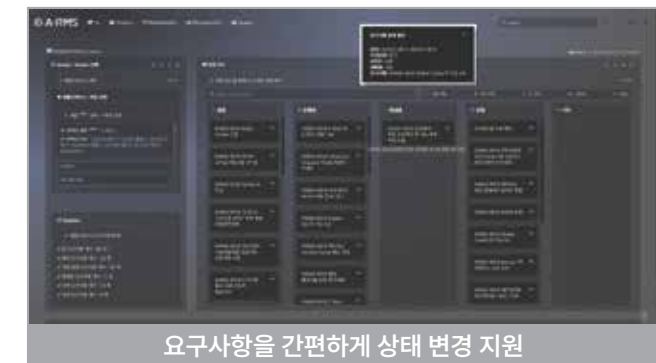
실무자들이 맥락 없이 일하는거 같습니까?

관리자

제품(서비스)의 요구 관리 - Tree + Excel



제품(서비스)의 요구 관리 - Gantt + Kanban + 자동 수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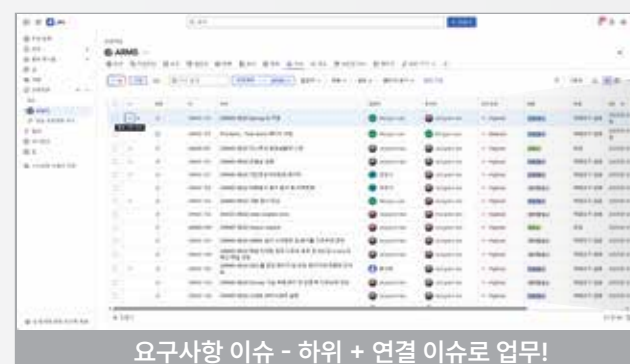
"이 정도면 됐다" → "끝나지 않는 수정", "애매한 품질"

실무자

"어느 선까지 해야 되죠?" / 요구사항이 없으니 명확한 기준도 없음

실무자

주입된 요구사항을 ALM으로 확인하고 업무



제품(서비스)의 요구사항 확인 및 변화 없는 / 업무 개선

